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치료재료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접근이 강조되면서 치료재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도입 가능성도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평가 및 급여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 주제는 '치료재료의 급여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입니다. 건강보험의 치료재료와 관련한 급여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필에는 권혜나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 김홍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문위원, 전기홍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각 계의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HIRA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제도의 효과분석'을 다루었습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슈브리핑'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치등제'와 '건강검진기관 평가·지정제 실시 및 검진 질관리 강화'의 개요를 실었습니다.

'해외동향'은 정책과 쟁점 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 체계'와 '미국의 치료재료 관리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해외의 치료재료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영국 NICE의 근거중심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판단의 원칙'과 '행정자료에서의 동반질환 보정' 연구 동향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은 2005년 정부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한 이후 진료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8년 03월까지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1월부터 HIRA정책동향은 기존 월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발행됩니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